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폐교 앞둔 학생들 지원

전교생 30명 마지막 수학여행
가정 환경 고려해 캐리어 지원
여행경비·어린이신문 등 후원
혜도 스님 "흔들림 없는 성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학생들에게 전달될 새 캐리어를 함께 들어 보이는 박용호 교장과 혜도 스님.

폐교를 앞둔 부산 영도의 한 초등학교. 11월 25일 마지막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임에도 운동장은 학생들의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다. 새로 받은 캐리어를 조심스레 끌며 버스로 향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서로의 가방을 짐칸에 실어 주며 신나게 웃는 장면이 펼쳐졌다. 폐교의 아쉬움 속에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지며 아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A초등학교는 전교생 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다. 올해 6학년 5명이 졸업하면 나머지 25명의 학생들은 내년부터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학여행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가정 형편상 캐리어가 없거나, 파손된 캐리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한부모가정(모자원)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와 담을 맞대고 있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선원은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논의해 전교생에게 새 캐리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캐리어에는 학생들의 여행을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안내지가 부착돼 선원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혜도 스님은 여행 경비 100만원도 별도로 지원했다.

박용호 교장은 "기부자의 뜻을 살려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에 편입해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은 취약가정 학생들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외부 공개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행 전에 짐을 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리어를 미리 전달했다. 아울러 선원은 A초등학교와 더불어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에 어린이 일간 신문 '소년한국일보' 10부씩을 두 달간 지원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돕기로 했다.

박 교장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폐교를 앞둔 상황에서도 지역의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현장은 설렘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새 캐리어를 뽐냈고, 짐칸 번호표를 확인하며 스스로 짐을 배치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절차도 차분히 해냈다.

버스 앞에서는 혜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신 손을 흔들며 아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다. 아이들도 즐겁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작은 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교생 캐리어 행렬'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경험을 남겼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폐교 소식을 접한 뒤부터 마음 한쪽에 오랜 아쉬움이 남았다고 전했다. 스님은 "선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을 보고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일상과 함께해 왔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온 터라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매우 안타깝고, 아이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애잔해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지막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 캐리어가 필요하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고 주저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혜도 스님은 "아이들이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니만큼 불편함 없이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해 훗날 사회와 국가를 이롭게 하는 인재로 자라 주기를 기도한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학교를 거쳐 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선원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국선원 "일상서 계율 실천하는 불자의 삶" 다짐

삼귀의·오계 합동수계법회
11월 23일…500여 명 동참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스님)이 11월 23일 부산 본원 법당에서 전국 분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오계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세종 분원을 비롯해 진주 미륵암, 창원 우곡사, 부산 대원사, 부산 무진선원, 가야 안국사, 시원암, 율하선원 및 안국법인 직원 등 각 지역에서 정진해 온 불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계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전계사 범석 수불 대종사는 이날 법문에서 "계율은 억누르는 규범이 아니라 나와 가족,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전(福田)"이라며 계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어 "계는 지키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남을 위해 베푸는 힘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곧 수행이 깊어지는 길이며, 불자의 삶이 넓어지는 길"이라고 설했다. 또 "인연 따라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수행과 계율의 덕목"이라며 "오늘 이 수계는 각 가정에 복덕이 자라고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큰 발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회에는 세종 분원 신도들의 참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세종 분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살계·오계 수계를 이어 오며 정진해 왔으나, 올해는 본원에서 처음으로 수계에 동참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세종 분원에서 참가한 박미현(법명 보림) 불자는 "이렇게 본원에 와서 큰 스님을 뵙고 여러 도반과 함께 받으니 더 감동적이고 뜻깊다"며 "처음 부산 안국선원에 온 분들도 규모와 법회의 분위기에 놀라워했고,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법회는 수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수불 스님은 "오늘의 이 인연이 각자의 수행을 단단히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해인사승가대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

11월 24일 정기총회 개최
승가상 시상·장학금 전달



법보종찰 해인사승가대학 제23대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칠곡 망월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4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불기 2569(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총동문회장에 동진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동진 스님은 "동문회가 수행 인재 양성과 승가교육 발전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며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화합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해인승가대상은 동명 스님(15기)이, 해인승가상은 도오(19기)·원천(20기)·경암(37기)·원당(38기)· 혜공(46기) 스님이 수상했다.

(재)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관한 장학기부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해인승가대학 재학생 20명과 우수 졸업생 2명, 일반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 승가대학장 원걸 스님에게 해인승가대학 교수진을 위한 연구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학성 스님은 장학회에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아름누리 '잡곡 나눔'

11월 23일 개금종합복지관
총 220세대에 각 3.2kg씩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과 사단법인 아름누리(이사장 홍순창)는 11월 23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잡곡 나눔' 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잡곡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이용자 128세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용자 80세대, 사회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12세대 등 총 220세대에 각 3.2kg씩 전달됐다. 이날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200만원, 아름누리 봉사단은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불련 부산지부 "청년 불교 도약" 발원

11월 23일 범어사서 연합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대불련 부산지부)는 11월 23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부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10개 대학에서 50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석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지도법사인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은 "대불련 부산지부는 범어사와 함께 정진·수행·봉사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기 연합법회뿐 아니라 겨울캠프, 타종식, 3보1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역사 속 한국비구니
1700년 한국 비구니사를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밝히고,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복원한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최초 비구니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